

공사비 깎이고 깎여 건설업계 '빈축'

표준시장단가 도입에도 4% 깎여... 공공 의존 건설사 30% 매년 적자

정부는 올해부터 100억~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품셈(정부고시 가격) 대신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를 쓰고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공사비가 4% 가량 깎여 건설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2년 전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고도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조속한 가격 현실화를 미루고 있어서다.

또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은 2000년 이후 17년째 제자리다. 공사규모에 따라 80~87.745% 수준으로 못박혀 있다. 반면 같은기간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건설공사비지수는 108% 올랐다.

최저가낙찰제의 저가투찰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1년여만에 낙찰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81%대였던 평균 낙찰률이 지난해 4분기에는 79%대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7개 단체가 지난 29일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치권에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와 공공공사 낙찰률 문제,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 등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

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기 수준으로 대폭 줄고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약 30% 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며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하도급인,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과 관련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증가, 나아가 실사용자인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구체적으로 100억~300억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복수에 비가적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 적격심사제·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제로 인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TF)을 꾸리고 공사비 실태조사와 산정체계 및 입찰할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농가소득 증대 위한 시군지부장 회의 개최

전북농협은 최근 소득중심의 변화하는 농정의 흐름을 전파하고 계통조직 참여를 확대하고자 30일 상황실에서 관내 시군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소득 현황, 범농협 농가소득 증대 종합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군단위 농가소득 증대 추진 전략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군별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현장 우수사례 발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호 본부장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협 전체

농사무소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 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에서는 올해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업경쟁비 절감, 농식품부가치 제고, 농의소득원발굴 및 농가소득 간접지원의 6대 핵심역량 아래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가지·보리·닭고기로 만드는 가정식이 떴다'

농진청, 6월 맞아 조리법 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식재료를 선정한다.

6월에는 가지, 보리, 닭고기를 주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가정식 조리법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

6월의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법은 제철 식재료를 어울리는 음식조리법을 포함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가지는 가마솥밥 한椀에 반으로 잘라 얹어 살짝 익혀 간장양념에 무쳐서 별미로 먹었던 대표적인 보라색 채소이고, 미백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95% 이상을 함유한 수분과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가지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안토시아닌 성분인 '나스닌'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낮추며 HDL-콜레스테롤을 높여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등 최근 주목할 만한 색깔음식으로 건강과 피부를 위한 우수한 식재료로 소개되고 있다.

조리법으로는 '가지스테이크', '가지절임샐러드', '가지선' 등이 있다.

보리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비롯해 무기성분이 풍부하므로

쌀과 섞어 먹으면 혈중지질 수치를 낮추며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유익한 세균의 번식이 잘 되게 하여 피부 영양에 관여하는 비타민 B6 및 비타민 B복합체 판토텐산의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생활습관병 예방과 함께 미용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식재료이며, 조리법으로는 '보리밥장떡', '보리열무지짐', '보리마늘종볶음', '보리콩벌레'를 소개했다.

굴투탕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핵산 등 맛 성분이 듬뿍 들어 있어 강하면서도 산뜻한 맛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닭고기는 영양성분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부유별로도 특성이 뚜렷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닭고기를 이용한 조리법으로는 '닭떡갈비', '닭가슴살방국', '닭고기채소무침'을 소개했다.

6월의 식재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v.kr>)-생활문화-음식-이달의음식'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한귀정 농업연구관은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이달의 식재료'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영양학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LCC 항공업계 유일 탄력근무제도 시행

이스타항공이 LCC 항공업계 중 유일하게 탄력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은 스케줄근무자를 제외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출퇴근 시간에 차이를 두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인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내 제안제도를 통해 접수돼 시행된 안건이다.

이스타항공은 매달 사내 게시판과 주니어보드회의를 통해 사내제도 개선이나 사기진작에 관한 제안을 상시 접수 받고 있다.

제도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실

행방안을 검토해 실시간 피드백과 접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월간소통회의에 발표되며 좋은 제안에는 포상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장거리 통근 직원이나 맞벌이 부부, 기타 개인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이 매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

현재 시행이 2달여 채 안됐지만 이 용률은 4월 47%, 5월 53%에 달하며 직원들이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업무제휴, 조인식

전북은행은 지난 29일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와 본점 9층 회의실에서 '전북은행-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업무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제휴 조인식에는 양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오는 6월 12일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와 전북은행간 제휴카드 발급 및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기관은 신용카드를 통한 업무협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교류할

동 지원, 기업간 동반성장 협력문화 구축, 지역사회 발전의 상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같이 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제휴 조인식에서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김정식 회장과 전북은행 김태진 부행장은 "기업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여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안재용 기자

전개공, 미래전략 자문 간담회 개최

전북개발공사는 30일 전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10여명을 초청해 공사의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건설) 분야에 대한 설명 및 추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 순

으로 진행됐으며, 공사의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전임 국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전임 국장단은 전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내 유일의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고, 농어촌 임대주택 사

업과 같이 소외된 지역에도 주택보급 등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새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전북개발공사가 정부 및 전북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 공기업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재찬 사장은 "전북개발공사는 전

북도 및 도의회의 지원과 도민들의 관심을 원동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154억 및 2016년도 최고매출액을 달성했고,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래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